

학령전기 아동의 정신적 표상 :  
정상 아동군과 임상군의 비교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 학 과

서 동 향

학령전기 아동의 정신적 표상 :  
정상 아동군과 임상군의 비교

지도 박 기 창 교수

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1999년 12월 일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 학 과

서 동 향

# 서동향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9년 12월 일

## 감사의 글

이 논문이 완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세심한 지도로 돌보아 주신 박 기창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함께 배려해 주신 신 의진 교수님, 안 정숙 교수님, 임 백근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항상 저를 격려해주신 신 정호 교수님과 바쁜 시간을 쪼개어 연구 절차를 같이 해준 이 혜란 선생님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평생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켜 봐주신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이 작은 결실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자 씀

# 목 차

국문 요약 .....	1
<b>I. 서론</b> .....	2
<b>II. 연구 대상 및 방법</b> .....	5
1. 연구 대상 .....	5
2. 연구 절차 .....	6
3. 자료 분석 .....	8
<b>III. 결과</b> .....	10
1. 대상 아동의 이야기 내용 .....	10
2. 부모에 대한정신적 표상 .....	11
3. 정서 반응과 이야기의 일관성 .....	12
4. 부모에 대한 정신적 표상과 정서 반응, 이야기의 일관성과의 관계 .....	13
<b>IV. 논의</b> .....	15
<b>V. 결론</b> .....	20
참고 문헌 .....	21
부    록 .....	24
영문 요약 .....	31

# 표 목 차

표 1. 대상군의 특성 .....	6
표 2. 정상아동군과 임상군의 이야기 꾸미기에 나타난 내용항목 빈도비교 .....	10
표 3. 정상아동군과 임상군의 부모에 대한 정신적 표상 비교 .....	11
표 4. 정상아동군과 임상군의 정서적 반응과 이야기의 일관성 비교 .....	12
표 5. 정상아동군의 부모에 대한 정신적 표상과 정서반응, 이야기일관성의 상관관계 .....	13
표 6. 임상군의 부모에 대한 정신적 표상과 정서반응, 이야기일관성의 상관관계 .....	14

## 학령전기 아동의 정신적 표상 : 정상 아동군과 임상군의 비교

소아 정신의학 분야에서 학령전기 아동의 정신적 표상을 알아보는 것은 그들의 내적 세계를 이해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놀이이야기 기법인 MacArthur Story-Stem Battery(MSSB)는 아동의 정신적 표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들의 내적 세계를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본 연구에서는 정상아동군 55명과 불안장애 또는 적응장애를 진단 받은 임상군 23명의 MSSB를 이용한 놀이 이야기 꾸미기에 나타난 이야기의 주제, 정서 반응과 부모에 대한 정신적 표상을 비교하였다.

정상아동군은 내용 항목에서 임상군에 비해 애정, 공감/도움, 제휴를 임상군은 정상아동군에 비해 비전형적 반응, 처벌, 배제, 복종을 더 많이 보였다. 그리고 정상 아동군은 부모에 대한 긍정적 표상을 더 많이 보였으며, 부모에 대한 긍정적 표상과 기쁨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불안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긍정적 표상을 가지는 것이 정서적 조절 능력과 관련이 있으며, MSSB가 학령전기 아동의 내적 세계를 평가하는데 유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핵심되는 말 : 정신적 표상, 학령전기 아동, 놀이 이야기 꾸미기, 임상군

# 학령전기 아동의 정신적 표상 : 정상 아동군과 임상군의 비교

<지도 박기창 교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 서 동 향

### I. 서론

소아 정신의학 분야의 임상가들은 소아의 행동, 정서상태, 생각, 환경에 대한 고유의 시각 등의 여러 면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려는 시도를 하여 왔다. 이에 대한 필요성은 정상아동에서도 중요하지만 정신병리를 보이는 아동에서 그들의 내적 세계를 이해하고 발달과정을 밝힌다는 면에서 더욱 절실하다. 과거의 정신 병리 평가 방법은 아동을 직접 관찰하는 방법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부모, 교사 등의 관찰에 의존하는 것이 절대적이었다. 그러나 이런 관찰 조사는 외부로 표현되는 면에 대한 평가는 가능하지만 아동의 주관적 경험, 정서 상태에 대한 직접 평가가 어려운데, 특히 불안과 우울 등의 내재화 장애를 가진 아동에서 자기보고 척도가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Weissman 등, 1987; Klein, 1991).

학령전기 아동의 경우는 그 특성상 사건의 시간적 서술을 잘 하지 못하며 자신의 경험에 대해 덜 보고하는 경향이 있어서 직접 면담을 통해서도 주관적 경험에 대한 보고가 어렵다(Glasberg와 Aboud, 1982; Harter와 Pike, 1984).

자기보고식 설문에 의한 평가 역시 만 8세 미만의 아동에서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적용이 어렵다(Perrin과 Last, 1982; Silverman, 1991). 그러나 아동의 정서상태나 직접 느끼고 경험하는 정신적 표상을 이해하는 것은 아동의 포괄적 진단과 치료과정에서 중요하며(Warren 등, 1996), 외부적으로 드러



나는 행동상의 문제에 대한 평가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정신적 표상은 초기 영아기의 부모와 이루어진 반복적 경험을 내재화하면서 발전된 그들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기대로서, 애착관계로부터 기원하는 인간관계에 대해 가지는 전반적인 표상을 반영할 뿐 아니라, 정신의 기저에 자리잡게 되어 외부에서 관찰 가능한 행동 전반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아동의 정신적 표상을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어떤 접근이 가능할까?

언어적 표현에 제한을 보이는 학령 전기 아동의 경우는 놀이를 관찰하는 것이 전통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왔다. 기본적으로 아동의 놀이는 사회적 상황에서 충동의 연기, 조절, 제한을 가능하게 하는 개인의 역량을 반영한다(Singer와 Singer, 1976). 또 아동의 내적 세계의 갈등, 공포, 소망과 보았거나 경험했던 일들을 반영하게 되므로 놀이를 통해 아동의 갈등과 세상과 자신에 대한 관점에 대해 가정할 수 있다(Mayes와 Cohen, 1993). 실제로 임상에서는 놀이치료와 놀이면담이 이용되어 왔으나, 그 과정을 통해 유추해낸 이러한 가정이 과연 아동의 실제 내면적 경험과 일치하는지를 증명해주는 경험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 중요성만이 인식되고 있다. 아동의 놀이 관찰 중 특히 놀이 이야기 꾸미기의 내용과 구성은 언어적 보고가 미숙한 아동의 내적 세계를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Oppenheim 등(1997a)에 의하면 대부분의 아동은 3세가 되면 간단한 이야기를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놀이 이야기 꾸미기는 아동이 그들의 경험, 사고, 정서를 내적 세계와 통합하도록 해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일관성 있는 이야기를 꾸밀 수 있는 능력은 부정적 경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이 Main(1995)에 의해 제안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객관적 자기보고가 미숙한 학령전기 아동에서 내적 마음의 표상을 알아보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서 MacArthur Story-Stem Battery(Bretherton 등, 1990) (이하 MSSB)라는 놀이 이야기 꾸미기 방법이 개발되었다. MSSB에서는 대인관계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복잡하고 어려운 갈등 상황의 14가지 주제를 제시하고, 아동에게 이야기 꾸미기에 감정적으로 몰입하여 다양

한 인물이 되어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이야기를 꾸미도록 요구한다. 이런 상황에서 논리에 맞는 일관된 이야기를 꾸며가기 위해서는 언어적 기술 이상의 것이 필요한데, 제시된 갈등상황이 유발하는 정서적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므로 아동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여 정서적 조직(emotional organization)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Oppenheim 등, 1997b). 이러한 정서적 조절능력은 출생 초기에는 양육자에 의해서 외부적으로 얻어지지만(Kopp, 1989) 언어, 의사소통 능력과 신경학적 체계의 발달에 따라 아동의 내부적 조절이 가능해지므로 그 동안의 경험과 발달의 결과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MSSB에 나타나는 주제나 정서, 이야기의 일관성 여부, 주변 인물의 투입, 비전형적 반응 등 모든 내용은 아동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표상의 전반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갈등과 정서적 사건을 묘사하는 이야기를 통해 아동의 정신적 표상을 알아보는 MSSB의 유용성에 강조를 두고, 이를 이용 부모에 대한 아동의 정신적 표상, 아동의 지각과 내적 표상, 정서적 기능간 관계에 대해 정상아동군과 임상군간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정상아동군과 임상군 각각의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주제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2. 정상아동군과 임상군의 부모에 대한 정신적 표상이(긍정적, 부정적, 혼욕적 표상)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3. 정상아동군과 임상군에서 드러나는 정서반응과 이야기 꾸미기의 일관성은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4. 이야기 속에서 드러난 정서반응과 부모에 대한 정신적 표상 사이의 상관관계는 각 군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

## II. 연구대상 및 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MSSB를 이용하여 부모에 대한 아동의 정신적 표상을 알아볼 수 있는 만 4세 이상 7세 미만의 학령 전 정상아동군 55명과 연세대학교 신촌 세브라스 병원 소아정신과 외래를 방문한 만 4세 이상 7세 미만인 환자 23명의 임상군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이야기 꾸미기 연구(narrative study)로써 아동들의 언어적 능력이 요구되므로 KEDI-WISC(박경숙 등, 1991)와 K-WPPSI(박혜원, 곽금주, 박광배, 1991)를 시행하여 전체 지능과 언어성 지능이 평균 범위에 속하고, 그림 어휘력 검사(김영태 등, 1995)를 실시, 그 결과가 해당 연령의 범위에 속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정상아동군과 임상군간의 연령과 성비는 차이가 없었으며, 지능은 전체 지능이 정상아동군에서 의미 있게 높았으나 언어성 지능과 그림 어휘력 검사에서는 차이가 없었다(표 1).

표 1. 대상군의 특성

변인	정상아동군(n=55)	임상군(n=23)
	mean ± SD <sup>1</sup>	mean ± SD <sup>1</sup>
나이	4.62 ± 0.7	4.70 ± 0.9
지능	전체지능*	116.13 ± 12.7
	언어성지능	116.21 ± 3.4
그림어휘력검사 <sup>2</sup>	72.38 ± 10.5	71.74 ± 11.0
성별	남자	32(58.2%)
	여자	23(41.8%)

주 1. SD : Standard Deviation

2. 월령평균

\* :  $p < .05$

## 2. 연구 절차

1) 정상 아동군의 경우 일반 유치원과 유아원을 통해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참여할 의사가 있는 아동의 어머니를 모집하였는데, 그 중 부모와 유치원 교사의 보고를 통해 특별한 적응상의 문제가 없는 아동에 대해 부모의 동의 후 대상군에 포함시켰다. 임상군의 경우 신촌 세브란스 병원 소아정신과 외래에 내원한 아동들 중 불안장애 또는 적응장애를 진단 받은 아동들에 대해, 부모의 동의를 얻어 대상군에 포함시켰다.

각각 유치원의 조용한 방과 신촌 세브란스 병원 놀이 치료실에서 검사를 실시하였다. 아동의 주의력을 고려하여 4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본 연구의 검사인 MSSB를 먼저 실시하였다. 그리고 지능 발달 수준과 언어 발달 수준을 평가하고 통제하기 위한 지능검사와 그림 어휘력 검사를 실시하였다. 외부의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분위기에서 MSSB 검사 과정을 녹화하였다.

## 2) 평가 도구와 방법

이야기 꾸미기를 통해 아동의 내적 표상을 알아보기 위한 도구인 MSSB는 아동을 놀이로 유도하여 반응하도록 하기 위한 생일파티 이야기와 정서적으로 힘들고 갈등적인 상황을 포함하는 14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있다.

검사자가 아동에게 가족관계나 친구와의 갈등 상황, 도덕적 딜레마, 신체적 손상 등의 정서적으로 자극되는 상황의 서두를 제시하고 나머지 이야기를 아동에게 꾸미도록 요구하는 구조화된 검사로, 아동이 얼마나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로 꾸며 나갈 수 있는지를 평가하게 된다.

구체적인 평가내용은 14개의 이야기중 이야기 꾸미기로의 몰입을 유도하기 위한 첫 번째 이야기를 제외한 13개의 이야기에 나타난 이야기의 내용과 주제(content theme), 정서반응(emotional reaction), 부모에 대한 정신적 표상(parental representation)이다.

① 내용과 주제 항목은 경쟁(competition), 공유(sharing), 질투(rivalry/jealousy), 배제(exclusion), 공격성(aggression), 공감/도움(empathy/helping), 공감/도움 거절(refused empathy/helping), 대인간 갈등 해결(interpersonal conflict resolution), 고자질(tattling), 복종(compliance), 불복종(noncompliance), 대인간 갈등의 고조(escalation of conflict), 수치심(shame), 제휴(affiliation), 비난(blame), 애정(affection), 괴롭힘/조롱(teasing/taunting), 부정직(dishonesty), 처벌(punishment), 보상/죄의식(reparation/guilt), 언어적 다툼(verbal conflict), 개인적 상해(personal injury), 비전형적 반응(atypical response), 반복(repetition)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내용 항목에 대한 자세한 평정 기준은 부록 1에 제시하였다.

② 13개의 이야기 각각에 대해,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긍정적, 부정적, 혼유적 표상, 세 범주로 나뉘는 정신적 표상의 유무에 따라 0점이나 1점을 주게 된다. 하나의 이야기에서 세 가지 부모양육태도에 대한 표상이 모두 평정될 수는 있으나, 같은 범주 내에서 부모에 대해 보인 표상 중 가장 주도적인 것 하나만으로 평정하게 된다. 부모양육태도에 대한 아동의 표상을 반영하는 점수는 13개의 이야기에 대해 평정한 각각의 점수를 합한 점수로 모두

0점에서 최고 13점까지 평정하였으며 자세한 평정 기준은 부록 2에 제시하였다.

- ③ 아동이 13개의 이야기에서 보이는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을 통해 기쁨(joy), 분노(anger), 고통(distress), 근심(concern), 슬픔(sad), 불안(anxiety), 부정(denial)의 정서 반응을 평정한다. 기쁨, 분노, 고통, 근심은 4점 척도로(0-3), 슬픔은 3점 척도로(0-2), 불안은 2점 척도로(0-1) 평정하여 각각 점수를 합산하였다.

또한 아동이 이야기를 얼마나 일관되게 이끌어내는지에 대해 11점 척도로(0-10) 각각의 이야기에 대하여 평정하여 점수를 합산하였다.

자세한 평정 기준은 각각 부록 3,4에 제시하였다.

위의 평정은 훈련받은 정신과 의사와 심리학과 대학원생이 MacArthur Narrative Coding Manual(Robinson 등, 1995)을 사용하여 비디오 테이프를 보면서 시행하였다. 35명의 반응을 평정한 후에 무작위로 5명의 평정결과를 선택, 불일치한 결과들에 대해 녹화된 비디오 테이프를 보며 토론을 통해 평정 내용에 대한 의견일치를 이룬 후 다시 각각 평정을 실시하였다.

### 3. 자료분석

- (1) 정상아동군과 임상군에서 이야기 내용 항목의 발생 빈도, 부모에 대한 정신적 표상(긍정적, 부정적, 혼육적 표상) 및 실험 동안 보인 정서반응을 비교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 (2) 부모에 대한 아동의 정신적 표상과 실험동안 아동이 보인 정서반응, 이야기의 일관성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정상아동군과 임상군 각각에서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3) 범주 변인인 이야기 꾸미기의 내용 변인과 부모에 대한 정신적 표상에 대한 평정자간 신뢰도는 Cohen의 Kappa 계수를 구하고, 연속 변인인 정서 반응과 이야기의 일관성에 대한 평정자간 신뢰도는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구하였다.

이 모든 통계처리는 SPSS/PC ver 8.0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 III. 결과

#### 1. 대상 아동의 이야기 내용

각 내용 항목의 유무에 기초하여 13개의 이야기에서의 발생 빈도를 구하였다.

표 2. 정상 아동군과 임상군의 이야기 꾸미기에 나타난 내용 항목 빈도 비교

내용항목	빈도(%)		내용항목	빈도(%)	
	정상아동군 (n=55)	임상군 (n=23)		정상아동군 (n=55)	임상군 (n=23)
비전형적 반응*	24.34	37.12	수치심	6.71	6.02
보상/죄의식	18.60	16.72	공유	5.59	4.01
처벌**	18.32	30.77	고자질	5.31	5.01
개인적 상해**	16.50	4.34	대인간 갈등의 해결	3.49	4.34
불복종	15.38	12.37	대인간 갈등의 고조	3.50	1.67
애정*	15.24	10.00	부정직	3.08	5.68
공감/ 도움**	13.98	13.70	비난	2.66	5.01
제휴*	13.70	9.03	반복*	2.09	13.71
공격성	13.57	11.37	언어적 다툼	1.82	4.01
배제**	12.02	25.41	공감/ 도움의 거절	0.56	1.33
복종**	9.79	14.38	괴롭힘/조롱	0.41	0.33

주 \* :  $p < .05$

\*\* :  $p < .01$



양군에서 질투와 경쟁 항목은 관찰되지 않았다. 정상아동군의 경우 비전형적 반응, 보상/죄의식, 처벌, 개인적 상해, 불복종 등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임상군의 경우는 비전형적 반응, 처벌, 배제, 보상/죄의식, 복종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정상아동군에 비해 임상군에서 많이 나타난 반응으로는 비전형적 반응, 처벌, 배제, 복종, 반복이었다(표 2).

내용 항목에 대한 평정자간 신뢰도 Cohen의 Kappa 계수의 평균은 0.84였다.

## 2. 부모에 대한 정신적 표상

정상아동군에서 임상군에 비해 긍정적 표상이 의미 있게 더 많이 나타났으며, 통계적 의의는 없었으나 임상군에서 부정적 표상과 혼육적 표상이 많이 나타났다(표 3).

표 3. 정상 아동군과 임상군의 부모에 대한 정신적 표상 비교

부모에 대한 정신적 표상	정상아동군 (n=55)	임상군 (n=23)
	mean ± SD <sup>1</sup>	mean ± SD <sup>1</sup>
긍정적 표상*	3.09 ± 1.6	4.53 ± 1.6
부정적 표상	0.65 ± 0.8	0.45 ± 0.8
혼육적 표상	2.74 ± 1.7	2.53 ± 1.7

주 1 SD : Standard Deviation

\* :  $p < 0.05$

### 3. 정서반응과 이야기의 일관성

정서반응의 경우 기쁨, 고통, 근심은 정상아동군에서 더 많이 나타났으며, 불안과 슬픔은 임상군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 이야기의 일관성은 정상아동군에서 더 잘 유지되었다(표 4).

아동의 정서반응과 이야기에 관한 평정자간 신뢰도를 보여주는 상관계수의 평균은 0.81이었다.

표 4. 정상 아동군과 임상군의 정서반응과 이야기의 일관성 비교

정서반응/ 이야기 일관성	정상아동군 (n=55) mean ± SD <sup>1</sup>	임상군 (n=23) mean ± SD <sup>1</sup>
정서반응 기쁨*	9.22 ± 5.57	22.11 ± 6.10
분노	0.87 ± 1.42	0.55 ± 1.03
고통**	0.83 ± 1.15	3.60 ± 3.82
근심**	10.17 ± 4.91	17.11 ± 4.51
슬픔**	1.74 ± 1.32	0.71 ± 0.89
불안*	10.91 ± 2.73	9.44 ± 3.07
이야기의 일관성**	64.26 ± 14.07	77.36 ± 17.82

주 1 SD : Standard Deviation

\* : p<0.05

\*\* : p<0.01

#### 4. 부모에 대한 정신적 표상과 정서 반응, 이야기의 일관성과의 관계

정상아동군의 경우 부모에 대해 긍정적 표상을 가진 경우 기쁨과 정적 상관계를 보였고 불안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서, 긍정적 표상을 가진 아동의 경우 다리 흔들기, 얼굴 비비기, 손가락 빨기, 인형을 특별한 목적 없이 조작하기 등과 같은 반복적이고 안절부절못하는 행동을 적게 보여, 정서와 행동을 적절히 조절하여 불안표현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야기의 일관성은 임상군과 정상아동군 모두에서 부모에 대한 긍정적 표상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표 5, 6).

표 5. 정상아동군의 부모에 대한 정신적 표상과 정서반응, 이야기 일관성의 상관관계

	PR <sup>1</sup>	NR <sup>2</sup>	DR <sup>3</sup>	JO <sup>4</sup>	AN <sup>5</sup>	DI <sup>6</sup>	CO <sup>7</sup>	SA <sup>8</sup>	AN <sup>9</sup>	NC <sup>10</sup>
PR <sup>1</sup>		.05	.14	.32*	-.11	.22	-.06	.07	-.35**	.44**
NR <sup>2</sup>			.01	-.03	.16	.09	.08	.01	.13	-.08
DR <sup>3</sup>				-.22	.08	.15	.02	.12	.02	.27*
JO <sup>4</sup>					-.06	.15	-.20	.22	-.16	.15
AN <sup>5</sup>						.19	-.05	-.15	-.09	.01
DI <sup>6</sup>							-.11	-.06	-.25	.29*
CO <sup>7</sup>								-.08	.38**	-.31**
SA <sup>8</sup>									.24	-.13
AN <sup>9</sup>										-.46**
NC <sup>10</sup>										

주 1 : 긍정적 표상    2 : 부정적 표상    3 : 혼욕적 표상    4 : 기쁨  
 5 : 분노            6 : 고통            7 : 근심            8 : 슬픔  
 9 : 불안            10 : 이야기의 일관성  
 \* : p<0.05        \*\* : p<0.01

표 6. 임상군의 부모에 대한 정신적 표상과 정서반응, 이야기 일관성의 상관관계

	PR <sup>1</sup>	NR <sup>2</sup>	DR <sup>3</sup>	JO <sup>4</sup>	AN <sup>5</sup>	DI <sup>6</sup>	CR <sup>7</sup>	SA <sup>8</sup>	AN <sup>9</sup>	NC <sup>10</sup>
PR <sup>1</sup>		-.42*	-.18	.13	-.17	-.14	-.06	.35	-.18	.55**
NR <sup>2</sup>			.09	-.35	.34	.27	.24	-.21	.05	-.28
DR <sup>3</sup>				-.26	-.23	.24	-.18	.18	-.16	-.16
JO <sup>4</sup>					.24	.18	.40	.00	-.28	.34
AN <sup>5</sup>						.23	.23	-.40	-.35	-.04
DI <sup>6</sup>							-.16	-.06	-.06	.07
CR <sup>7</sup>								.12	.23	.12
SA <sup>8</sup>									.23	-.07
AN <sup>9</sup>										-.19
NC <sup>10</sup>										

주 1 : 긍정적 표상    2 : 부정적 표상    3 : 혼욕적 표상    4 : 기쁨  
 5 : 분노            6 : 고통            7 : 근심            8 : 슬픔  
 9 : 불안            10 : 이야기의 일관성  
 \* :  $p < 0.05$       \*\* :  $p < 0.01$

## IV. 논의

### 1. 각 군의 아동은 이야기 꾸미기에서 어떤 내용을 보이는가?

본 연구에서 사용된 MSSB는 Bretherton 등이 미국의 중산층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 의해 만들어졌다. 본 연구에서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는 우리나라 아동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들이 관찰되었으나 질투와 경쟁에 대한 내용은 관찰되지 않았다.

가장 흔한 반응은 양 군 모두에서 제시된 이야기의 주제와 무관하게 막연히 부정적인 내용, 예를 들어 식구들이 모두 물에 빠지거나, 집에 불이 나거나, 부모가 집에 돌아왔는데도 아이들이 모두 눈을 감고 자고 있는 등의 반응이 가장 흔하게 나타났다. 특히 임상군에서는 등장 인물들이 어디에선가 떨어지고 죽는 등의 반응이 많이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임상군은 부모에 의한 신체적 또는 언어적인 처벌이, 정상아동군에서는 아동이 실수로 주스를 흘렸을 때 본인이 직접 부모의 도움 없이 치우거나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등의 보상/죄의식 내용이 많았다. 그 외 임상군에서는 배제, 복종, 반복 항목이, 정상아동군에서는 처벌, 신체적 상해, 불복종, 애정 항목이 나타났다.

임상군에서 정상아동군에 비해 의미 있게 많이 나타난 항목이 배제, 반복, 복종, 처벌 항목인데 이는 정서적으로 힘든 갈등 상황에서 어떤 해결을 제시하기보다는 회피하거나,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같은 상황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임상군에서 복종이 정상아동군에 비해 많이 나타나는 것은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의사 표현보다는 무조건 외부의 요구를 수용하여 갈등을 피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MSSB의 기본적인 의도가 아동이 정서적으로 힘든 상황에 부딪혔을 때 어떤 생각을 하며 얼마만큼 정서적인 조절이 가능하고 부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는지를 평가하는 것인 만큼, 양군의 아동들이 주로 비전형적 부정적 반응, 처벌, 신체적 상해 등의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반응을 많이 보였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정상아동군과 임상군 모두가 정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는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정신적 표상을 많이 보인다는 것을 시사한다. 아동의 이야기 주제는 아동 개인의 세상, 자기(self), 타인에 대한 정서와 경험을 반영하는 내적 표상의 표현으로 부모에 대한 아동의 내적 표상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

Buschbaum 등(1992)의 학대받은 낮은 경제수준의 학령기 아동군과 경제 수준이 낮지만 학대받지 않은 학령기 아동군을 비교한 연구에서 학대당한 아동들이 이야기 꾸미기에서 부적절한 공격성, 무시, 성적 행동, 자아에 대한 부정적 진술을 더 보이며, 육설 같은 언어를 사용하여 서술한다는 것이 관찰되었다. 또한 Main(1994)의 연구에서 학대받은 아동은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내용의 이야기 꾸미기를 보여 주었으며, 불안정 애착을 보이는 아이들은 부모-아동 분리 동안의 위기에 대한 상상적 이야기를 형성하지만 행복한 결말로 끝맺고, 비조직/비일관된 애착 아동들은 갈등에 대한 해결 없이 두렵고 파국적인 악몽의 환상을 나타냄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임상군 아동이 공격성보다는 배제, 반복, 복종 등의 내용 항목을 많이 보이는 이유는 본 연구에 참여한 임상군이 학대의 경험이 없으며, 외현화 장애를 보이는 아동들보다는 불안 등의 내재화 장애를 보이는 아동으로 이루어진 점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 **2. 아동은 부모에 대해 어떠한 정신적 표상을 가지는가?**

본 연구에서 임상군과 정상아동군 모두에서 부모에 대해 칭찬하거나 도와주는 등의 긍정적 표상을 가장 많이 표현하였고, 그 다음이 아동에게 훈육을 하는 훈육적 표상이 많았다. 예측하였던 대로 정상아동군에 비해 임상군에서 긍정적 표상이 적게 나타났다. 또한 의미 있는 정도는 아니었으나 훈육적 표상, 부정적 표상은 임상군에서 많이 나타났다. 추후 임상군의 정신병리의 종류나 정도에 따라 부모에 대한 표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는 연구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3. 아동이 이야기 꾸미기 과정에서 보이는 정서반응과 이야기의 일관성 정도는 어떠한가?**

본 연구에서 임상군은 불안, 근심, 즐거움 순으로 정상아동군은 즐거움, 근심, 불안 순으로 정서반응을 나타내었다. 아동들의 미소와 즐거워하는 표정을 보고 평정하게 되어있는 즐거움의 경우 전반적으로 아동들이 시종일관 미소를 띄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많은 경우에서 아동들이 불안해지면 오히려 어색한 미소를 짓는 것이 관찰되는데 이것이 진정으로 기뻐서 표현되는 즐거움과는 다르므로 다른 항목으로 평정하거나 즐거움을 평정하는 기준을 우리 문화에 맞게 바꾸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불안장애 또는 적응장애 진단을 받은 아동으로 구성된 임상군에서 불안이 가장 많이 나타난 결과는 당연하다 할 수 있으나, 부정적 표상을 가지는 임상군이 갈등 상황의 해결에 취약하여 쉽게 불안을 표출한다는 설명도 가능하다. 정서 반응과 함께 평가된 이야기의 일관성 정도는 임상군이 정상아동군에 비해 의미 있게 저하되어 있었는데 갈등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여 논리적으로 일관되지 못한 이야기를 만들어 낼뿐만 아니라, 이야기의 내용도 풍부하게 전개해 나가지 못하고 짧고 단순한 이야기로 끝내 버리는 것을 반영한다.

### **4. 이야기 꾸미기에서 표현된 아동의 정서 반응, 이야기의 일관성과 부모에 대한 정신적 표상이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는가?**

정상아동군과 임상군 모두에서 부모에 대한 긍정적 표상이 아동들의 이야기의 일관성 유지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부모에 대해 일관된 긍정적 표상을 가지는 것이 아동의 일관된 이야기 구성에 반영된다는 Oppenheim과 Waters(1995)의 연구와 일치된 소견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부모에 관한 부정적, 혼욕적 표상은 정서적 측면과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긍정적 표상은 불안과

의미 있는 부적 상관을 보여 부모에 대해 긍정적 표상을 많이 가질수록 불안의 표현이 적음을 알 수 있다. Bretherton 등은(1990) 애착이론의 견지에서 정서적으로 개방되고 민감한 부모-아동간 의사소통이 애착관계에 대한 일관된 내적 표상 혹은 작업 모델(working model)을 형성하는 아동의 능력을 촉진한다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일관된 이야기가 형성되었을 때, 아동들은 그들의 행동뿐 아니라 정서를 더 잘 조절할 수 있게 되며, 부모에 대한 아동의 긍정적 표상이 이야기 꾸미기 상황에서 행동과 정서를 조절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불안 표현을 적게 한다고 할 수 있다.

아동의 놀이에서 공격적 주제는 역기능적 행동의 반영이 아니라는 연구들(Schaefer,1976; Marans 등, 1993)과는 달리, Warren과 동료들은 분노, 근심과 같은 부정적 정서는 행동문제와 관련을 보이지 않지만 고통의 정서와는 관련성이 있음을 보였다. 그리고 정서적 갈등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말할 때, 슬픔, 분노, 근심은 적절한 반응일 수 있으나 고통의 표현은 극단적인 반응이라고 한다(Warren 등, 1996) Warren과 동료들은 고통과 공격적/파괴적 주제 변인들은 정서적 조절곤란 지표로써 서로 의미 있는 관련성을 보인다고 보고하였고, 놀이에서 보이는 고통과 공격적/파괴적 주제 반응은 실제 경험 상황을 다루려는 아동의 시도를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한다. 본 연구의 임상군의 경우 내용 항목 중 반복이 정상군에 비해 많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놀이에서 실제 경험을 다루어보려는 시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공격적/파괴적 주제가 많이 나타나지 않고 반복 항목이 더 많이 나타났다는 것은 연구 대상이 주로 불안을 주증상으로 보인 아동들이므로 극도로 제한된 정서적 표현과 함께 행동을 보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대부분의 아동들이 이야기에서 극심한 고통을 보이기보다는 다른 다양한 정서를 보이기 때문에, 이야기 꾸미기에서 보이는 극심한 고통은 정서 조절의 곤란을 직접적으로 말해준다고 한다(Buchsbaum과 Emde, 1990; Bretherton 등, 1990; Warren 등, 1996). 그러나 본 연구에서 임상군에서 고통, 근심이 오히려 적게 나타나고, 불안, 슬픔이 더 많이 나타난 것은 자신의 정서에 대한 표현 자체가 제한된 불안장애로 구성된 연구대상군의 특성과, 평정 체계에 있어 문화적 차이 때문이라 생각된다. 고통스러운 정서반응은 아동의 정서적 조절 능력이 떨어진다는 의미로 쉽게



정서적으로 압도될 수 있는 맥락으로 이해되며, 정신적 표상이 긍정적인 아동에서 정서적 조절력이 좋고 불안이나 근심이 적게 나타나고 공격적, 반항적 정신적 표상이 많은 아동에서는 정서적 조절 능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Rudolph 등(1995)은 가설적인 어머니에 대해 들려준 이야기를 회상시키는 이야기 과제(Story Task)를 통해 어머니에 대한 긍정적인 스키마를 가진 집단이 긍정적인 묘사를 부정적인 묘사보다 더 잘 회상하고, 부정적인 스키마를 가진 집단은 긍정적인 묘사보다 부정적 묘사를 더 잘 회상함을 밝혔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긍정적인 부모에 내적 표상이 아동의 긍정적인 이야기 주제와 연관됨을 의미하며 본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 V. 결론

본 연구에서 갈등과 정서적 사건을 묘사하는 이야기를 통해 아동의 정신적 표상을 알아보는 MacArthur Story-Stem Battery(MSSB: Bretherton 등, 1990)를 이용하여 정상 아동군과 임상군의 이야기 꾸미기에 나타난 내용항목, 정서반응, 부모에 대한 정신적 표상을 관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정상아동군은 내용항목에서 애정, 공감/도움, 제휴를 많이 보인 반면, 임상군에서는 부정적 내용의 비전형적 반응, 처벌, 배제, 복종을 많이 보였다.
2. 정상아동군이 임상군에 비해 부모에 대해 긍정적 표상을 더 많이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부모에 대해 긍정적 표상을 가지는 경우, 기쁨과 같은 긍정적 정서표현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불안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런 결과를 통하여 부모에 대해 긍정적 표상을 가지는 것이 정서적 조절 능력과 관련이 있었으며, 임상군의 갈등 상황의 해결은 정상아동군에 비해 배제, 반복, 복종, 처벌의 내용 항목에서 보여주듯이 스스로 회피하고 자신의 반응을 제한하는 왜곡된 방식이 두드러졌는데, 이는 아동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표상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 김영태, 장혜성, 임선숙, 백현정 : 그림 어휘력 검사 실시요강. 서울, 서울장애인 종합복지관, 1995
- 박경숙, 윤점룡, 박효정, 권기욱 : *KEDI-WISC 검사요강*. 서울, 한국교육 개발원, 1991
- 박혜원, 곽금주, 박광배 : *K-WPPSI 검사요강*. 서울, 도서출판 특수교육, 1991
- Bretherton I, Oppenheim D, Buchsbaum H, Emde RN, The MacArthur Narrative Group : *MacArthur Story-Stem Battery*. Unpublished manual, 1990
- Bretherton I, Ridgeway D, Cassidy J : Assessing internal working models of the attachment relationship: an attachment story *completion task* for 3-years-olds. In: Greenberg MT, Cicchetti D, Cummings EM (eds.), *Attachment in the Preschool Year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73-310, 1990
- Buchsbaum HK, Emde RN: Play narratives in 36-month-old children. *Psychoanal Study Child*. 45 : 129-155, 1990
- Buchsbaum HK, Toth SL, Clyman RB, Cicchetti D, Emde RN: The use of a narrative story-stem technique with maltreated children: Implications for theory and practic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4, 603-625, 1992
- Glasberg R, Aboud F : Keeping one's distance from sadness: Children's self reports of emotional experi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18, 287-236, 1982
- Harter S, Pike R : The pictorial scale of perceived competence and social acceptance for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55, 1969-1982, 1984

- Klein R : Parent-child agreement in clinical assesment of anxiety and other psychopathology: a review. *J Anxiety Disord* 5, 187-198, 1991
- Kopp CB : Regulation of distress and negative emotions : A developmental view. *Developmental Psychology*. 25, 343-354, 1989
- Main M : A move to the level of representation in the study of attachment organization: Implications for psychoanalysis. *Bulletin of the British Psycho-analytical Association*, 1-15, 1994
- Main M : Introduction to the special section on attachment and psychopathology: 2. Overview of the field of attachmen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8, 237-243, 1995
- Marans S, Dahl EK, Marans W, Cohen D : Aggressivity in play : Discussions with oedipal children : The Many Meanings of Play. Solint AJ, Cohen DJ, Neubauer PB, eds. New Heaven, CT : Yale University Press, 275-296
- Mayes LC, Cohen DJ : Playing and therapeutic action in child analysis. *J Psychoanal* 74, 1235-1244, 1993
- Oppenheim D, Waters H : Narrative processes and attachment representations : Issues of development and assessment In Waters E, Vaughn B, Posada G, Kondo-Ikemura K(Eds.), Caregiving, cultural, and cognitive perspectives on secure base behavior and working models: New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60(2-3), 197-215, 1995
- Oppenheim D, Emde RN, Hasson M, Warren S : Preschoolers face moral dilemmas : a longitudinal study of acknowledging and resolving internal conflict. *Int J Psycho-Anal* 78, 943-957, 1997a

- Oppenheim D, Emde RN, Warren S : Emotion Regulation in Mother-Child Narrative Co-Construction : Associations with Children's Narratives and Adapt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3, 284-294, 1997b
- Perrin S, Last CG : Do childhood anxiety measures measure anxiety? *J Abnorm Child Psychol* 20, 567-578, 1992
- Robinson J, Mantz-Simmons L, Macfie J, the MacArthur Narrative Working Group : *Narrative Coding Manual*. Unpublished Scoring System. University of Colorado Health Science Center, Denver, CO. 1995
- Rudolph KD, Hammen C, Burge D : Cognitive Representations of Self, Family, and Social Competence and Sociometric Status. *Child Development*, 66, 1385-1402, 1995
- Schaefer C : *The Therapeutic Use of Child's Play*. New York : Jason Aronson. 1976
- Silverman WK : Diagnostic reliability of anxiety disorders in children using structured interviews. *J Anxiety Disord* 5, 105-124, 1991
- Singer JL, Singer DG : Imaginative play and pretending in early childhood : Some experimental approaches. Davids A(ed) : *Child Personality and Psychopathology : Current Topics*. New York, Wiley, 69, 1976
- Warren SL, Oppenheim D, Emde RN : Can emotions and themes in children's play predict behavior problems? *J Am Acad Child Adolesc Psychiatry*, 34, 1331-1337, 1996
- Weissman MM, Wickramaratne P, Warner V : Assessing psychiatric disorders in children. *Arch Gen Psychiatry*, 44, 747-753, 1987

## 부록

### 부록 1. 내용항목

- 공유** 아동 혹은 성인들간 긍정적 관계로 대상이나 동물의 공유를 포함한다.
- 배제** 한 인물이 다른 인물의 활동 참여를 막거나 배제시키는 경우(other-exclusion)와 갈등으로부터 고립과 철회를 포함시키기 위해 활동 혹은 타인으로부터 자신만을 배제시키는 경우(self exclusion)를 포함한다.
- 공격성** 다른 인물, 소품, 혹은 대상을 향한 피험자 혹은 등장인물들에 의해 나타난 신체적, 언어적 공격성을 의미한다. 이런 상호작용은 그들에게 부정적 의미(negative quality)를 가지며 적대적, 파괴적인 행동과 고통을 야기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 공감/도움** 등장인물 혹은 참가자가 행동을 통해 타인의 사고나 감정을 동일시하거나 이해를 드러낸다. 그리고 참가자가 희생자와 무언가를 공유하거나 고통을 경감시키는 행동으로 희생자를 도움으로써 희생자의 주의를 딴 데로 돌리려는 행동을 포함한다.
- 공감/도움  
거절** 공감/도움을 다른 인물에게 요구하나 거절당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 대인간  
아동의  
갈등해결** 다른 인물을 곤란하게 만들거나 자신을 더 잘 보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제삼자에게 갈등 해결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갈등 해소를 위해 협상을 하는 내용들을 포함한다.
- 고자질** 한 인형이 다른 인형을 곤란하게 만들거나 자신을 더 잘 보이기 위해 다른 인형을 고자질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 복종** 등장인물이 규칙이나 성인의 요청에 따르는 상황과 요청되어진 것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복종이 의미 있기 위해서는 아동이 이야기에 대한 이해를 보여야만 한다.

<b>대인간 갈등의 고조</b>	초기 공격성 표현의 증거 이상으로 공격성의 수준이 상승해야 하며, 그들에게 행해졌던 공격성 혹은 분노의 같은 수준을 반영하는 보복 행위를 포함한다. 그러나 훈육이나 처벌을 포함하는 상황은 이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b>수치심</b>	한 인물이 다른 인물을 부끄러워할 때, 등장인물이 당황하는 표시를 보이거나 자기비난의 말을 하는 것을 포함한다.
<b>제휴</b>	둘 이상의 인물이 함께 활동에 참여하는 상황을 포함한다.
<b>비난</b>	타인에 의해 저질러진 일에 대해 자신을 비난하거나(blame-self), 그들이 저지른 행위 혹은 저지르지 않은 행위에 대해 타인을 비난하는 것(blame-other)을 포함한다.
<b>애정</b>	안기, 키스하기, 칭찬 등의 애정을 표현하는 말이나 행동을 포함한다.
<b>괴롭힘/ 조롱</b>	등장인물들이 원하는 물건을 가지고 타인을 조롱한다.
<b>부정적</b>	등장인물이 거짓말하거나, 흠치거나, 속이는 내용이 포함된다.
<b>처벌</b>	벌하기 위해 가해지는 신체적, 언어적 처벌이 언급된다.
<b>보상/ 죄의식</b>	죄의식을 보이거나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다시 고치려는 예가 포함된다. 이는 언어적인 것일 수도 비언어적인 것일 수도 있다.
<b>언어적 다툼</b>	아동과 성인간 호통 혹은 욕하는 것 같은 언어적인 논쟁적 말을 포함한다.
<b>개인적 상해</b>	신체적으로 다쳤거나 신체적 고통이 인정되는 상처를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는 자신이 입힌 상해나 타인 혹은 소품에 의해 야기된 사고의 결과일 수 있다. 공격적 행동 혹은 상해만이 아니라 상처 혹은 고통에 강조가 요구된다. 만일 희생자가 고통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한 인형이 다른 인형의 배에 뛰어 오르는 것 같은 예는 포함되지 않는다.
<b>비전형적 부정적 반응</b>	검사자로 하여금 당혹감을 느끼게 하는 이상하거나 비조직화된 반응을 포함한다.

- 경쟁** 같은 대상 혹은 활동을 얻기 위한 아동들간의 양자적 관계를 말한다. 순서 차례 혹은 공평성에 대한 불평, 자신과 타인의 부정적 비교를 포함한다.
- 절투** 성인의 관심에 대한 아동들간의 삼각관계를 묘사하는 언급에 대해 평정한다.
- 불복종** 등장인물이 규칙이나 요청을 무시하는 상황이나 그것에 반대되는 무언가를 하는 것을 말한다. 그들이 규칙을 깨뜨리기 전이나 깨뜨리는 동안 그것에 대해 정당화시킨다.
- 반복** 검사자에 의해 서술된 이야기 혹은 행위만을 반복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앞에서 언급되었던 이야기의 주제를 다시 이야기 하는 경우를 말한다.



## 부록 2. 부모에 대한 정신적 표상

### 긍정적 표상(Positive Representation)

1. 보호(Protective) : 부모가 실제적 혹은 가능한 위협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것으로써 묘사된다.
2. 보살핌(Caregiving) : 부모가 먹여주거나 달래거나 상처를 치료해주는 보살핌 행동을 보인다.
3. 애정(Affectionate) : 부모가 아동에게 키스해주고, 안아주고, 따뜻한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4. 도움(Helpful) : 부모가 아동을 돕는 것으로써 묘사된다.
5. 용서(Forgiving) : 갈등이나 잘못을 용서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 부정적 표상(Negative Representation)

1. 신체적 학대(Physically Abusive) : 부모가 아동에게 신체적으로 처벌하거나, 공격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2. 언어적 학대(Verbally Abuse) : 부모가 언어적으로 아동을 위협, 공격, 비난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3. 비전형적(Bizarre/Atypical) : 부모가 부정적 정서의 이상한 비일관된 행동을 하는 것으로써 묘사된다.

### 훈육적 표상(Disciplinary Representation)

1. 훈육적(Disciplinary) : 부모가 훈육, 통제를 가하고 올바른 행동에 보상을 주는 것으로 묘사된다.

### 부록 3. 감정 반응

**Joy** : 즐거움 수준을 표현하는 피험자의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준으로 평정한다.

- 0 = 장난감이나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이지는 모르나, 어떤 긍정적인 얼굴의 반응이 없다.
- 1 = 긍정적인 말이 동반되지 않은 신체적 움직임에서의 즐거움  
사람이나 장난감에 대한 직선적인 언어적 흥미나 주의  
아동이 “기쁨” “즐거움” 등의 감정을 서술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2 = 신체적 흥분은 없이 즐거운 말이 동반되는 고양된 관심을 입증하는 웃음을 보인다.
- 3 = 신체적 흥분이 동반된 매우 기쁜 언어적 표현을 보인다.

**Anger** : 가장 높은 수준을 기준으로 평정한다.

- 0 = anger의 표현이 없다.
- 1 = 가벼운 분노가 단음절의 목소리에 의해 묘사된다. 분노에 대한 표현이 있다.
- 2 = 1과 같으나 더 오래 지속되고 분노의 목소리가 표현된다.  
1이 여러 번 반복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3 = 2보다 표현이 더 강하다. 울음도 포함한다.

**Distress** : 구체적 기준에 만족되어야 한다.

- 0 = 어떤 개인적 고통이나 관찰되는 고통이 없다.
- 1 = 눈이 커지고, 눈썹이 올라가고, 입이 벌어진다. 이런 반응이 2초 이상 지속된다. 공포로 인해 등장인물이 사라지거나, 공포에 대해 진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 1과 같은 반응이 지속된다. 얼굴은 눈썹이 처지고 울음을 터뜨리기 직 전까지의 전환기로 나타난다.

3 = 지속적이면서 강화된 반응으로 눈썹이 처리고 입이 열리는 반응으로 묘사된다. 여러 번 울거나 고통스러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Concern** : 사건과 관련되어 나타난다. 피험자 또는 등장인물이 타인에 대한 근심을 보일 때 평정한다.

0 = 중립적인 정서반응을 보이며 피험자의 이야기에 대한 어떤 동정/근심도 나타나지 않는다.

1 = 2-20초간 침울해하거나 아래쪽을 보는 것으로 나타난다. 피험자가 등장 인물에 대해 근심을 나타내거나 말한다. 이야기의 근심스러운 부분 동안 근심스러워하는 태도로 검사자를 쳐다본다.

2 = 침울해하고 얼굴을 찌푸린다. 등장인물에 대해 눈에 띄는 근심을 보이며 이것이 반복된다.

3 = 완전히 동정적인 표정을 나타낸다. 피험자가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말을 하며 등장인물에 대해 심각하게 동정을 보이며 중재 안을 내놓기도 한다.

**Sad** : 슬픔에 대한 말 또는 표정이 드러난다.

0 = 슬픔이 보이거나 언급되지 않는다.

1 = 슬픔을 내포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슬픈 표정이 나타난다.

2 = 슬픔의 연장된 표현이 있으며, 한번 이상의 슬픔을 내포한 단어가 사용된다.

**Anxiety** : 염려 혹은 불안을 나타내는 아동의 신체적 움직임, 몸을 흔들거나 손가락 빨기, 안절부절못하기, 입술이나 물건을 씹기 등의 자기위로 (self-soothing)행동을 포함한다.

0 = 어떤 불안 행동도 드러나지 않는다.

1 = 하나 이상의 불안 행동이 드러난다.

#### 부록 4. 이야기의 일관성

- 0 = 반응이 없거나 피험자가 덧붙이는 부분 없이 이야기 전체 혹은 부분을 반복한다.
- 1 = 이야기에서 벗어난 전환을 보인다. 피험자가 원래의 이야기로 돌아가지 않는다.
- 2 = 피험자가 이야기의 기본구조에는 따르나 갈등을 다루지 않는다. 이야기의 일부가 일관되지 않는다.
- 3 = 피험자가 갈등에 대한 이해를 보이거나 해결이 기대되어질 때 어떤 해결도 제시하지 않고 이야기의 끝은 맺지 않는다. 이야기의 일부가 일관되지 않는다.
- 4 = 피험자가 원래의 이야기의 줄거리나 자극으로 제시된 제약을 변환시킴으로써 갈등을 다룬다. 이야기가 비일관된 전환을 보인다.
- 5 = 피험자가 갈등이나 이야기에 대한 이해를 보이고, 더 쉬운 해결책을 제공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이를 다룬다.
- 6 = 피험자가 갈등이나 이야기에 대한 이해를 보이고 이야기의 윤색 없이 해결책을 제공한다. 전형적으로 이야기가 매우 짧다. 피험자는 이야기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만 제공한다. 이야기의 일부분이 비일관된다.
- 7 = 6과 같으나 일관된 이야기를 보인다.
- 8 = 이야기의 갈등에 대한 이해를 보이며 이야기를 꾸며서 해결책을 제공한다. 이야기의 부분이 비일관된다.
- 9 = 8과 같으나 일관된 이야기를 보인다.
- 10 = 이야기의 줄거리와 관련된 매우 일관되고 논리적이며 연속적인 사건을 얘기하지만 원래의 이야기를 변화시키지는 않는다. 갈등에 대한 이해와 해결이 언급되며 이야기에 비일관된 전환이 없으면서도 많은 윤색을 보인다.

## **ABSTRACT**

### **Mental representation of preschool children : Comparison of normal and clinical children**

**Dong-Hyang Seo**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Associated Professor Ki-Chang Park)

In child psychiatry, it is very important to examine the mental representation of preschool children in order to understand their inner world.

The specific play narrative technique used in this study was MacArthur Story-Stem Battery(MSSB) and it provided information about children's mental representation.

The play narratives of 55 normal preschool children and 23 clinical children who were diagnosed with anxiety disorder or adjustment disorder were compared in content theme, emotional reaction and parental representation.

Normal children showed greater affection, empathy/helping and affiliation than the clinical children but clinical children showed greater atypical reaction, punishment, exclusion and compliance than the normal children. Normal children showed greater positive representation of the parent than the clinical children. Among the correlations between parental representations and emotional reactions, positive parental representation and anxiety showed negative correlation.

According to the above results, positive mental representation seems to be related with emotion regulation ability. MSSB may be an useful method for gaining access into the inner world of preschool children.

---

**Key words** : mental representation, preschool children, play narrative,  
clinical children